

세계 온라인 시장에 엔터키를 입력하다

물 반, 사람 반이라도 좋다. 찌는 여름 물 찾아 삼만 리, 전국 바닷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해변, 시원한 파도, 슬러거는 모래성, 아! 아찔한 비키니, 불타는 청춘...은 다른 세상 얘기고. 여기, 개발과 영업의 비지땀의 바다에서 바깥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일하는 것이 곧 노는 것이라는 이들, 신개념 온라인 정보전달서비스 '마이링크(mylinker)' 로 국내 1600만 유저를 확보한 쇼테크의 전략마케팅본부 팀원들이다.

I really wanna Shotech to become one of Korea's most successful IT company and launch its IPO! (해석 필요하신 분~) | **설민중 대리**

저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자연분만! 모유수유! | **김홍택 팀장**

나의 지인들이 우리 회사의 솔루션을 알아보고 나에게 말을 먼저 꺼내는 그날까지! | **김창건 대리**

변화하고 있는 쇼테크, 변화를 주도하는 마케팅팀. 그리고 거기에 선봉 '승제' | **이승제 팀장**

가을부터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대변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조은경 대리**

평균 연령 20대 후반으로 일에 대한 열기가 왕성한 이들은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매출에 한창 신바람이 났다. 일인이 상품 개발 제안에 서부터 프레젠테이션, 영업을 거쳐 수금까지 마무리하는 시스템으로 회사 내 각자의 사업을 따로 차린 모양새니, 이들은 회사 안에 상주한 젊은 CEO들에 다름 아니다.

이 CEO급 팀원들의 절대 신뢰를 받는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다' 교리 주창자, 워커홀릭 김도현 실장. 신입사원에게 그가 묻는 첫 말은 '그대의 꿈은 이루어졌는가'이다. 어렸을 때 꿈이 영업맨은 아니었을 터, 발을 들여 놓은 이상 이 분야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하고 배워야 성공한다는 세뇌 작전의 포석을 놓는 것이다.

직책이나 선후배 관계를 떠나 서로에게 스승이라는 이들은 쇼테크의 다크호스 돌격대로 막강 팀워크를 자랑한다. 이 정도 단합이라면 보통 분위기를 띄우는 주당 몇이 포진해 있을 법도 한데 김도현 실장이 말하는 이 팀의 팀워크 비결은 의외다.

"저희 팀원 대부분이 백해무익인 술·담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텃밭아 술·담배를 끊고 있는 중이죠. 퇴근 후에도 술자리를 갖기보다는 운동을 하면서 기합을 넣는 것이 저희 전략마케팅본부가 팀워크를 다지는 방법입니다."

팀원의 절반가량이 기독교 신자인 이들의 단합은, 따라서 술기운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다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워크숍 뒷풀이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내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자기가 맡은 몫에 최선을 다하는 쇼테크의 젊은 CEO들. 가슴에 세계를 입력한 이 벤처인들에게 세계 각국의 쇼테크 지시장이라는 목표는 꿈이 아닌, 미래다. 세계 온라인 광고 서비스의 선봉에 선 이들의 본격적인 활약을 기대해 본다.

◀ 미래 지시장들에게서 듣는 2005년 후반기에 대한 짧고 굵은 단상